



“수요일엔 060-700-1080 눌러요”

일반전화·휴대폰으로福 짓는 날
한통화 3000원 저절로 이웃돕게 돼

전주에 사는 K보살. K보살은 작은 친목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현대불교에서 펼치고 있는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동참, 생활비를 아껴 매달 익명으로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K보살의 도반들도 지난달부터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음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매주 수요일 모임에 나오는 보살들은 가장먼저 핸드폰을 들고, 나눔의 ARS (060-700-1080)를 누르는 것부터 시작한다.

또 서울 노원구에 사는 나상호 거사는 나눔의 ARS 번호가 새겨진 스티커를 주위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데 열성이다. 나 거사는 “그 동안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방법을 몰라 참여하지 못했다”며 “전화나 핸드폰을 통해 손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자들이 보다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대불교신문사가 3월말 개봉한 나눔의 ARS (060-700-

1080). 나눔의 ARS는 기존 후원모금 방식인 은행 지로와 자동이체가 후원자들이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 나눔의 ARS는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일반전화와 휴대폰을 통해 060-700-1080을 누르면 3천원이 다음달 전화요금 고지서로 청구된다. ARS로 들어온 기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된다.

김원우 기자



일일차집 수익금 600만원 어르신 무료급식에 쓰기로

대구 불광사 불광불교대학(학장 사요 스님)은 6월 29일 자비의 손길과 무료급식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차집과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0분의 고승대력을 초청하여 법문을 듣는 백과좌법회 갑신년 회향을 맞아 마련된 것. 불광사 대웅전 앞 마당에서 오후 3시와 저녁 7시 2회에 걸쳐 개최된 작은 음악회는 신도와 동네 주민200여명이 동참하는 가운데 불광사 합창단과 사물놀이팀 비롯해 도립국악단 지휘자 윤명국 씨의 피리연주, 김향교 씨의 시조창, 이기운 씨의 대금, 박천용 씨의 플루트 연주가 이어졌다. 경내 초의 찻집에서 개최된 일일차집 수익금 600여만원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소년소녀가장돕기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학장 사요 스님은 “작년부터 매주 해오던 지역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에 보다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자비봉사정신을 갖도록 해 주기 위해 일일차집을 개최하게 됐으며, 신도들의 후원이 좋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배지선 기자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장 스님, 보성 대원사 주지)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의 개원을 기념하고 환우들의 투병의지를 높이기 위한 '희망나눔 콘서트'를 6월 28일 저녁 병원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했다.

‘노래에 희망을 담아’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장 스님, 보성 대원사 주지)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의 개원을 기념하고 환우들의 투병의지를 높이기 위한 '희망나눔 콘서트'를 6월 28일 저녁 병원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병상의 따분함에서 벗어나 흥겨운 여름밤을 수놓았고, 이영남 화순군수, 김경열 화순교육장 등 지역기관장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환우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콘서트는 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현악 4중주를 시작으로 타악그룹 '일쭉'의 모듬북 공연과 유상호, 주권기, 양은주, 노은경 씨 등 재즈 및 통기타, 포크송 가수들의 열창이 이어졌다. 공연에 이어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전남대병원

생명나눔 광주전남본부 전남대병원서 콘서트 열고 환자 4명에 치료비 전달

(강형근 원장)은 입원환자 4명에게 치료비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 스님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피와 골수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펼치는 운동의 하나”라며 “더 많은 이들이 생명을 나누는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 본부는 현재 소아암 투병 어린이들의 수술비 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문의(062)234-6602
최순=이준엽 기자

나눔의 손잡기 성금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정지원 보살-200달러(21만원), 한미음선원 청구지원-9만 5,420원, 최재순 보살-3만원, 이재권 거사-5만원, 이현이 학생-5만원

정정합니다
의정부 광동여자고등학교에서 본사에 접수한 성금 '30만원'은 '34만원'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눔의 손잡기 동참
경기도 용인군 수지 신도시에 살고 있는 청정심 보살이 종고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여섯 개를 몇 달과 겨울 스웨터 기증을 신청했다.
hong-hee@orgio.net로 연락요망.

나눠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北에서 온 김창인씨 “남쪽 가족 찾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김창인씨가 셋째형 김창일(73세)씨를 예타게 찾고 있다. 김창인씨는 양강도 혜산시가 고향으로 남한에 둘째형 김창욱씨와 셋째형 김창일씨가 살고 있다. 김창인씨 가족은 1999년 중국에서 셋째형 김창일씨 가족과 만난 바 있다. 당시 만남을 계기로 생사를 결코 탐복한 김창인씨 가족은 올 5월 한국으로 건너왔다. 최근 탐복자 지원센터인 하나원을 나와 김창인씨 가족은 가장먼저 김창일씨 가족을 찾았다. 그러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살던 김창일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연락을 못해 막막한 상황. 김창일씨는 슬하에 김승미(39) 김세훈(37) 김지미(36)씨를 두고 있다. 6월 28일 본사를 찾은 김창인씨는 “오직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에 어렵게 중국을 거쳐 남한에 왔지만 연락이 끊겨버렸다”며 “그리움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 가는 것이 힘들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김씨는 “방법을 몰라 현대불교신문을 보다가 무작정 찾아왔다. 신문을 보고 전국에 계신 불자들이 형님을 찾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연락전화 02) 722-4162-3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 담당자.
김원우 기자



1999년 중국에서 만나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 사진 맨 오른쪽이 셋째형 김창일씨.



대구 불광사 사물놀이팀가 일일차집을 찾은 신도와 주민들에게 흥겨운 한마당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참여하세요

-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문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 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기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기구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준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